

‘또’ 접영 100m 출전하는 황선우 “한국新 못갠 아쉬움에”

수영연맹 포상금 2000만원 “맛있는 음식 사먹을래요”
세계선수권 후 휴식 기간에도 평일에는 훈련 이어가
“오는 12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서 또 우승하고파”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19·강원도청)의 욕심은 끝이 없다.

지난 6월말 막을 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쓴 황선우는 대회 후 휴가 기간에도 운동을 놓지 않았다.

0.03초 차이로 한국기록 경신을 아쉽게 놓친 기억이 있어 접영 100m에도 또 도전장을 던진다.

황선우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2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 및 포상금 전달식에서 세계선수권 은메달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47의 새 한국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경영 선수의 세계선수권 입상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금메달 이후 11년 만이었다.

행사 후 가진 인터뷰에 나선 황선우는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세계선수권에서 나와 뜻깊었다. 수영연맹 포상금을 받아 기분이 좋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상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

선우는 “고기, 치킨, 곰팡 등 사먹고 싶은 것을 사먹겠다. 마음껏 먹는 것을 좋아한다”며 “맛집 탐방도 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는데 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후원사인 CJ제일제당으로부터도 포상금 3000만원을 받은 황선우는 지난달 27일 귀국한 후 아버지에게 승용차를 선물한 사실도 공개했다.

황선우는 “아버지께 차를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같이 가서 봤고,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하셨다. 계약을 하고 왔는데 차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더라”며 웃어보였다.

귀국 후 황선우는 약 한 달 동안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운동을 놓지는 않았다.

황선우는 “3~4주 정도 휴가 기간이었지만, 평일에는 훈련을 했다. 계속 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운동하면서 지냈다”며 “주말에는 폭 쉬었다. 친구들을 만나 놀러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1박2일 여행도 다녀왔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친선선수촌에 입촌해 다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 황선우는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다음달 12~17일 전북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출전한다.

황선우는 자유형 50m와 접영 100m에 출전한다. 모두 주종목은 아니다. 황선우의 주종목

은 자유형 200m다.

황선우가 국내 대회에서 접영 종목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열린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도 접영 100m에 나서 우승했다. 당시 2020년 11월 양재훈이 세운 52초33의 한국기록에 단 0.03초 뒤진 52초 36을 기록했다.

“자유형 200m를 국내 대회에서 뛰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황선우는 “자유형 50m는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접영 100m에 출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0.03초 차이로 한국기록을 경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출전을 결정했다”고 했다.

황선우는 지난달 귀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2022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을 향해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우상혁은 지난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실의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를 뛰어올라 황선우와 마찬가지로 은메달을 땀다.

황선우는 “우상혁 선수가 저랑 같이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많이 응원했는데 은메달을 따기 힘들었다”며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축하한다”고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서로 나아가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우상혁 선수와 함께 수영, 육상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치면 정말 좋은 장면이 될 것 같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한국 수영의 ‘전설’ 박태환으로부터 “더 잘하는 선수”라는 평가도 들었던 황선우는 “제가 (한국나이로)6살 때 박태환 선수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봤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은메달리스트 황선우가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열린 2022 제19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해단식 및 포상금 전달식을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감명깊었다”며 “그렇게 됐던 선수가 저에게 응원을 해주고, 좋게 말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호주 전지훈련을 효과로 특별히 본 황선우는 “호주 전지훈련 덕분에 자유형 200m 한국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고, 계영 400m와 800m, 혼성 계영에서도 한국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호주 전지훈련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우는 8월 대통령배, 10월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12월에는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선다. 황선우는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2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의 메이저대회 첫 메달이었다.

황선우는 “오는 12월 열리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포디움에 올라가고 싶다. 지난해 났던 우승이라는 결과를 또 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

순천시청 여자유도팀, 실업유도선수권서 눈부신 활약

박다솔 -57kg 금·김혜미 -70kg 은·단체전 동메달 획득



순천시청 여자유도팀이 “2022 안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다.

전남유도회(회장 임종안)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안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순천시청 여자유도팀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먼저, 한국여자유도 국가대표이자 순천시청 소속 박다솔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다솔은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22 안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일반부 -57kg급 전국 최정상에 올랐다.

순천시청 박다솔은 1회전에서 하주희(고창군청)를 만나 누르기로 한판승을 거둬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신유나(광주도시

철도공사)를 안위축후기로 절반승을 따내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서수빈(고창군청)과 치열한 접전 끝에 발다리로 절반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며 당당하게 여자일반부 -57kg급 최정상에 올랐다.

이어서, 26일 순천시청 김혜미는 여자일반부 -70kg급에 출전해 1회전 양지영(제주도청)을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기권승을 하며 결승에 진출했으나, 부상으로 인해 기권패를 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27일, 여자부 단체전에서 순천시청은 충북도청과 포항시청에 이어 3위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자일반부에서는 여수시청 정진형이 +100kg에 출전해 2회전에서 양성민(경남도청)에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김이현(고려대)과 치열한 접전 끝에 되치기로 아쉽게 한판 패를 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양호 순천시청 유도감독(전남유도회 전무이사)은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힘든 훈련을 견뎌낸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남체육 발전과 더불어 전남유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여수서 팡파르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7개국 25척 참가...여수~통영~부산 대회 코스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남해안 상생발전’과 ‘새로운 요트항로 개척’을 목표로 개최된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3개 주 최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 여주시와 통영시, 대한요트협회가 후원한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 7개국 3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5척의 화려한 크루저요트와 함께 시원한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여수 가막만에서 경남 통영 도남항, 부산 수영만으로 이어지는 대회 코스는 남해안의 청정해 바다와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요트항로로 인기를 더할 전망이다.

대회 첫날은 선수등록과 참가자 안전교육이 진행되며, 둘째 날은 본격적인 경기를 앞두고 여수 가막만에서 미니요트레이스가 열린다.

셋째 날은 여수에서 통영으로 이어지는 1구간 레이스가, 넷째 날은 통영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2구간 레이스가 펼쳐진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부산 수영만 해운대에서 폐막식과 종합상식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남해안 중심 시대를 맞아 펼쳐지는 이번 대회가 해양레저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를 대회 준비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징계 복귀 후 타율 0.412’ 하주석, 이렇게나 달라졌다

지난달 불판정에 항의하다 퇴장...10G 출장 정지 징계

복귀 후 땅볼에도 전력질주하는 등 달라진 모습 보여줘

볼볼은 방망이에, 승리를 향한 투지까지. 하주석(28·한화 이글스)이 팀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주석은 최근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7월 나산 13경기에서 타율 0.412(51타수 21안타)를 날렸다.

눈여겨볼 부분은 타격감이 올라온 시점이다. 지난달말 해도 하주석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개막 첫 달 타율 0.226으로 힘겨운 스타트를 끊은 하주석의 6월 월간 타율은 0.135까지 내려앉았다.

그러나 사건이 터졌다.

하주석은 지난달 16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구심구의 불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퇴장 명령에 헬멧을 더그아웃에 던져 던지는 등 거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구단은 그에게 곧바로 2군행을 지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10경기 출장 정지,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40시간 징계를 내렸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시간을 보낸 하주석은 18일 만에 1군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곤 복귀전이었던 5일 NC 다이노스전 2

안타를 시작으로 힘차게 배트를 들고 있다. 징계 복귀 후 타율이 0.412다.

공교롭게도 따가운 비판 속 자신을 돌아보며 보낸 20여 일이 새로운 전환점이 된 셈이다. 달라진 건 단순한 숫자뿐이 아니다.

그는 26일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서 2회초 1루쪽 땅볼을 때렸다. 아웃이 될 수 있는 타구였지만, 하주석은 포기하지 않고 내달려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다.

전력질주로 보여준 승리를 향한 의지는 이날 2-1로 앞선 8회초 때려낸 2타점 3루타만큼이나 값진 장면이었다.

경기 후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도 “하주석의 전력질주로 만든 내야안타가 아주 인상 깊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탁구 신유빈, 3개월 만에 복귀...“경기 감각 회복 목표”

한국 여자탁구 간판 신유빈(18·대한항공)이 3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

신유빈의 소속사 매니지먼트GNS는 27일 “신유빈이 다음달 1일부터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리는 2022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캔터더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손목 수술 후 첫 대회 출전이다.

신유빈은 지난해 11월 세계탁구선수권에서 오른 손목 피로골절 부상으로 기권했다. 이후 재활을 거쳐 지난 5월 WTT 피터 시리즈에서 복귀, 여자 단식 4강까지 올랐다. 그러나 다시 손목 부위 통증을 느꼈고 정밀

검진에서 또 피로골절이 발견되면서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다행히 수술 경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다.

매니지먼트GNS는 “신유빈은 최근 라켓을 잡고 훈련에도 돌입했다. 복귀 시점을 조율하던 중 대회 출전을 통해 경기력을 회복하겠다는 선수 의지에 따라 복귀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유빈은 소속사를 통해 “수술의 경과도 좋고 회복도 잘 되고 있지만,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번 대회는 성적보다 경기 감각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